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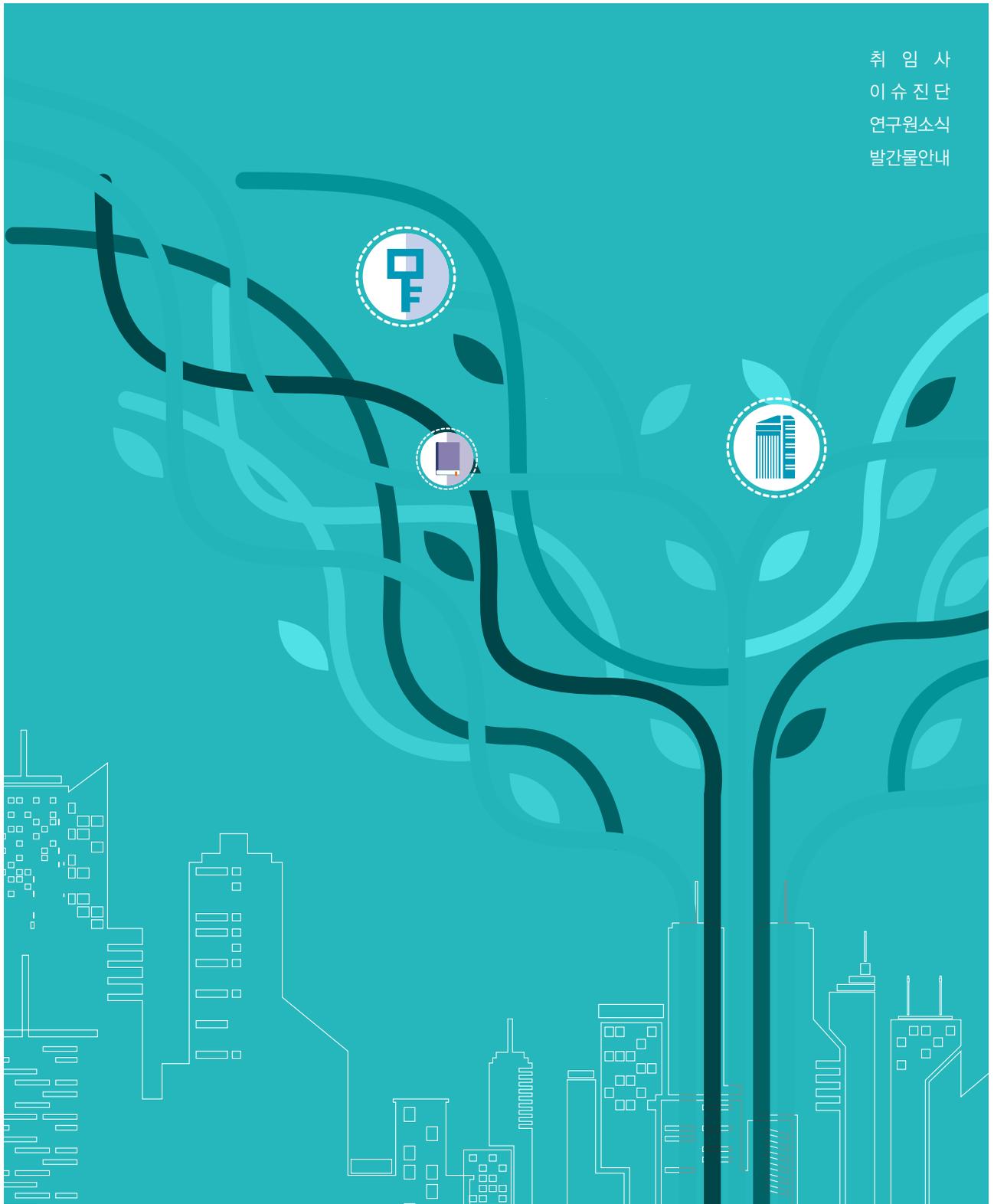
50호 2016년

7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자 라00076 발행일 2016년 7월 발행(50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서명교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취 임 사
이 슈 진 단
연 구 원 소 식
발 간 물 안 내



취 임 사

Inaugural Address



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서 명 교 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연구원의 원장을 제가 맡아 전문건설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의 부활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른 바 ‘뉴 노멀 경제’에 들어섰습니다. 급속한 IT기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저 연구원 역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문제 해결’, ‘미래비전 제시’, ‘현장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지원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문제 해결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해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뉴 노멀 경제, 글로벌 경기침체,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제여건에서 우리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공종별 지표적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일과 함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 에너지기술과 함께 공간정보·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으로 무장한 IT 산업이 100년의 대자본 철용성 자동차산업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곧 건설산업에도 파고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리는 시대에 대비한 전문건설 분야의 미래 비전과 더불어 필요한 변화전략을 연구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경영 현장에서 필요한 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에 맞는 케이스별 컨설팅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은 물론 연구원의 자립성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원 중심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기관, 학계, 관계 등과의 적절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연구원이 개원한지 10년이 됩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 성장하고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노력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무한한 애정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10년을 위한 출발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신뢰를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부지런히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문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서 명 교



SOC 예산 기준의 변화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OC 예산 기획에 있어 적정성 평가지표를 현행 스톡(stock)개념에서 부하(load)지수로 전환한다. 이는 양적개념에서 질적개념으로의 접근을 뜻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길이, 총량의 잣대가 아닌 성능, 안전, 노후정도를 평가하여 SOC 투자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간 스톡 기준의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SOC의 과부족에 인식이 컸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오히려 SOC투자가 가져온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였다. 또한 SOC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리로 인해 자원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SOC투자의 결과물이 쌓여가면서 손익 중심의 보편적 투자 효율성에서 기 투자된 시설의 미래를 감안한 목표지향적 투자를 감안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 중장기 투자방향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더 필요한 곳에 먼저'라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 곧 부하지수를 이용하여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보다 질, 신규 건설 중심에서 유지보수·운영 중심으로 기존의 경제성에서 벗어나 안전과 친환경까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균등적 시각에서 선택과 집중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SOC투자로 필요한 지역적 균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변화는 향후 정부의 SOC 투자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질적 평가 요소의 도입, 유지보수의 비중 확대, 안전과 친환경에 대한 부분의 강화는 이에 대한 특허나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SOC 투자자원의 한계로 인해 기존의 수주방식이 유지되겠지만, 기존 투자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매우 중요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경험적 요소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지보수나 운영적 측면의 발주는 시설물 등의 재기동 요건으로 대부분 시공기간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바로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SOC 적정성 평가기준에 대한 완비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공공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주어졌다.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반짝 호황 이후를 대비하자

최근 건설투자에 결과와 향후 지속성 대한 설왕설래가 오간다.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조한 건설투자 호조세를 이어오며 국내 경제를 지탱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예상하였다시피 마치 신기루 같은 반짝 호황이라는 점과 다가올 하반기부터는 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그리 낙관하지 않은 하반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반기에는 각종 부양책과 이에 따른 예산의 조기집행 그리고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 호조세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수출부진 그리고 설비투자의 마이너스 성장, 조선과 해운을 선두로 한 업종별 부진의 결과, 전기 대비 3분기 연속 0%대의 경제성장률과 전년대비로도 3%를 넘지 못했다.

인구가 기반이 되는 성장잠재력 또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인구감소가 2017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려운 것은 민간의 수요감소, 즉 수요 공백이다. 이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요소이며, 내수에 있어 핵심인 부분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내수의 근간은 민간이다. 민간이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6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8.2% 증가한 4,543가구가 증가하였다. 전체 미분양이 총 6만여 가구에 이른다. 올해 주택시장이 한풀 꺾여 조정을 보이리라는 전망은 연초부터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예상했을 뿐,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빠르게 발생할 것은 예상보다 이른 감이 있다. 그만큼 주택시장의 상황은 가변적이며, 예상하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경기의 활력 감소와 동력 저하는 결국 ‘성장’이라는 건설업의 영원한 모멘텀을 당분간 가져갈 확률이 높다. 경기순환국면상 2011년 호황 이후 경기국면은 아직 불황도 호황도 아닌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란 뜻이다.

좋은 때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다. 어려울 때 두 가지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 첫째로 공생(共生)을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기업 스스로의 활력을 찾아야한다. 공생이란, 건설업 환경에서의 공동의 생존을 위한 정책 변화 및 요구를 뜻하며, 각자도생이란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위한 수주 및 시공 기술수준의 변화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뜻한다.

제5대 서명교 원장 취임식



• 본원의 제5대 서명교 원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서명교 원장은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학을 전공하였으며, 기술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자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 취임 후 서명교 원장은 지난 7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건설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9월 7일(수),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

• 우리 연구원은 오는 9월 7일(수), 연구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문건설업계 정책브레인으로써 다양한 연구분야 모색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념행사 및 세미나를 전문건설회관(신대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2016년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발간



- 2/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이 발간되었다. 동 간행물은 전문건설업계의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한 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 동 조사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되며, 세부적으로는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 피해사례를 포함한 총 8개 항목, 41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현황과 경영환경변화 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조사항목도 추가·보완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